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10호 현대불교 25  
2008년 12월 17일(음력 11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 우주 삼세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도다!

### 순간순간이 정진이 되려면

**질문:** 정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스님께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정진으로 항상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냥 생활선법(生活禪法)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되 없으나 서나 지나거나 모든 것을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여건에서 세 가지 단계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발견할 수 없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에 남이 다 자고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이놈아, 네가 너 있다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해 주느냐?' 이거죠.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만이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똑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좌선도 되지만 그게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 못했을 때 지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한해선 특히 더하고, 스님네들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요, 첫째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다 거기서 나오고 벗어지는 거거든요. 뭐,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끊어서 놓아야 떨어지죠. 거기에서 예전에 살던 그 습성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그걸 한번 끊어놓고 그러니까 그 습성이 다 떨어지지 못하면 인정을 못해요. 하늘에서, 한을 중심으로 인정을 못한다 말입니다.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걸 해인(海印)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과의 습성, 인연들과 살던 그 습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자꾸 하지 말고 한번 끊어서 놓되, 그 마음이 분기해서 타 나오더라도 안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갖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

방이 돼 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 없어지죠. 그리고 둥글어지고 돌로 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 왜 천도재상에 음식을 놓지 않는지?

**질문:** 다른 절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보면 돌아간 이를 위해서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선원에서는 음식을 차리지 않고 초와 향, 꽃과 과일에 둥근 떡만 놓는 것이지요?

고, 그렇게 해서 이 안팎에서 지내 주는 거죠. 안과 밖을 다 그렇게 해 드리고 또 자손들도 이 공부를 하니깐 자손들을 통해서 듣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안 차려 놓는 원인은 영령들이나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들이 같이 일을 나갔다 하더라도 떡 가게에다가 전화해서 맞춰서 놓고 저녁에 일하고 퇴근하고 오다가 그거 찾아 가지고 와서 지내면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떡은 전체가 먹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영령들을, 조상님네들을 다 이렇게 리드해 보세요. 집안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상님네들도 마음이 흥락해서 좋으니까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천지를 건지는 거 하면 마음 하나가 천지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공법(空法)이라야지 그냥 법이라고 한다면 잘못되고 잘못된 걸 딱 따져서 이거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거는 천당으로 보낸다 이런다면 부처 될 자격이 없죠. 왜냐? 그 잘못된 사람도 본래 잘못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

그래서 첫째 살생하지 말라. 깨치지 못한 사람은 살생하지 말라. 깨친 사람은 살생을 해도 살생이 아니고 건지는 거다. 만약에 깨친 사람이 소를 건질 때에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그것을 안 먹겠습니까? 딱치는 대로 한 점 먹어서 만약에 소가 환토가 된다면 그건 의당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사지내고 천도시키고 하는 데에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뱀의 허물을 그냥 벗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통해서 많이 듣고 나면서 공부를 해야, 많이 듣고 나면서 이런 거를 알아서 차차차 그것이 벗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단박에 부처님도 건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건져 주기만 하면 뭘 합니까? 뱀의 습이 있어서 자꾸 끌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뱀의 습을 벗어주기 위해서 그 차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해라. 꼭 안 죽이면 안 될 때는, 때나 뭐라도 안 죽이면 안 될 때 그때는 주인공에다가 맡기고 해라. 그러면 자기는 죽인 사이가 없고 안에서 죽인 사이가 없다. 왜?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다' 는 뜻을 아십니까? 반야심경(般若心經)에도 있듯이 하나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없어서 힘이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했다고 하죠. '우주 삼세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도다.' 하는 셈이나 같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배우는 것은 배우려고 무조건 무심으로 그냥 묻고 질문하고 이러한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걸 따지고 이걸 따지고,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는 거는 공부하는 데 아예 지름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잘 보이고 싶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질문:** 저는 항상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잘되면 같이 기뻐하지 않고 기뻐 못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좀 고치기 힘들니다.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답변:**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시기 안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세요. 또 즐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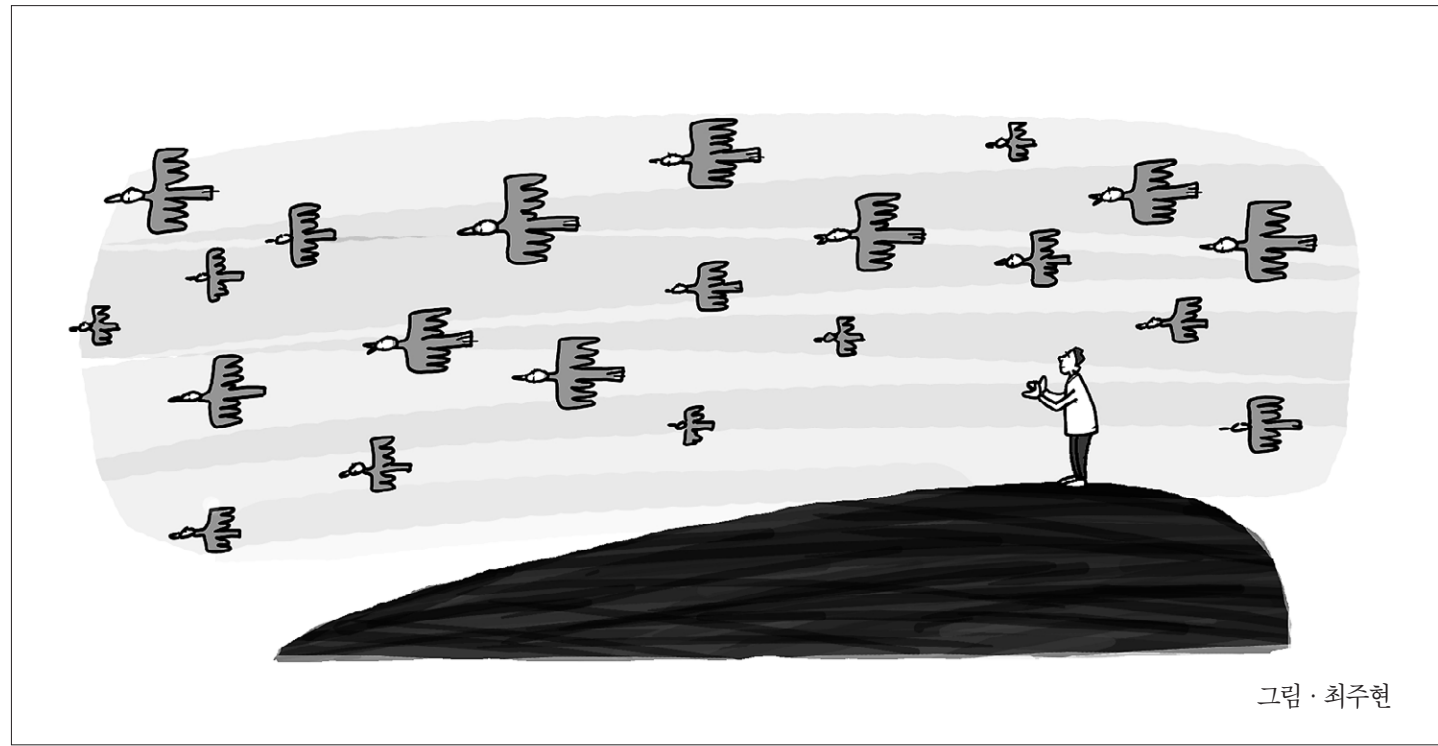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변:** 천도재를 지내는 데 왜 반찬도 밥도 안 해 놓고 그러느냐? 이거를 말씀하신다면 이 떡은 그냥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우주를 삼키는 떡입니다. 그 떡 하나에는 모든 일체 생물이 다 들어 있는 떡입니다. 그것은 모든 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밥상을 놓고 반찬을 차려 놓는다면 앞서 살던 습이 도로 성한단 말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집을 원하는 거, 자기 몸통이 아끼고 이라는 것이 그냥 다 합쳐져서 벗어나려 애써야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감동해서,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벗기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는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는 그런 뜻으로써 상을 차려서 그렇게 해서 그 의식이 다, 모든 것이 멀하

우리가 향이나 초나 똥그런 떡이나, 사람이 식구가 많으면 셋을 놓고 지내고 나눠 먹고 또, 적으면 하나만 놓고 하고, 하나가 삼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가 하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영령들은 제가 없기 때문에 위패를 해 놓는 원인이 거기 있죠. 거기에 응점을 해야만 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우주떡이라는 것이 말로만 우주 떡이 아니라 우주의 삼세가 다 들어 있는 우주떡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실이나 모두가 현실의 한 떡에 들어 있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데서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 그런 뜻으로써 상을 차려서 그렇게 해서 그 의식이 다, 모든 것이 멀하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이 때린다 하더라도 일깨워서 사람 되라고 해 줘야지 그 말과 뜻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건지는 거고 저래도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가 다 평등하게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아 있을 때에 너무 뱀을 많이 잡아서 먹었다. 개구리를 많이 잡아 먹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내가 봅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뱀이 풀리듯이 그렇게 죽는 거 하면 그 뱀에 자기 모습을 수없이 또 만들어 놓습니다.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 모습을 언제나 벗겠습니까, 또 생략해서 뱀으로만 애길 했는데 전후사가 다 그렇습니다.

##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택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otec.com

## 제 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 초급반(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 중급반(3개월) :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기초범음, 범패)
-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 특수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오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실놀이 연희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궁극에맞는 스님들을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헌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범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빠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빠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